

# 완주·전주 상생발전 노력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 지방정원가든센터' 건립 착공

### 전주시의회, 의원 전원 동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상생 논의기구 활성화 등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26일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논의기구 활성화 등에 관한 협력을 촉구했다. 협력 촉구 기구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이 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성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탄소와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와 장치 및 ICT 산업체의 완주 유치 등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가 통합찬반론 활동 개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논의기구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성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완주군,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 이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 정당대회에

### 정원문화 소개·복합문화공간 내년 12월 준공 예정

전주시가 호풍골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에 관람객과 주민들이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전주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짓는다.

전주시는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8㎡ 규모의 '전주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이달 말 착공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전주지방정원 가든센터'는 다목적홀과 세미나실, 작은도서관, 주민자율공간 등을 갖춰 지방정원 관람객과 주민들에게 정원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조성함에 따라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갖추게 된다. 다목적홀은 실내식물과 각종 정원소품, 예쁜 정원 사진전 등 전시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세미나실에서는 정원식물 그리기,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문화특강 등 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작은



도서관도 정원 특화 도서관으로 채워져 관람객들이 정원 관람뿐 아니라 정원에 대한 교양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 지방정원 가든센터'가 단순한 안내센터가 아닌 지방정원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 모두 정원문화를 누리며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충환 전주시 녹지정원과장은 "전주 지방정원과 가든센터가 전주의 새로운 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프랑스 한글학교생, 전주 방문 한국문화 체험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한옥과 한복, 한식 등을 맛보기 위해 프랑스 한글학교생 및 가족 30여명이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시는 초청을 통해 방문한 프랑스 한글학교학생 등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등을 찾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했다고 밝혔다.

K-컬처 붐이 특히 압도적인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인 중에서도 한글학교에 다니며 한국문화에 심취해 있는 이들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경험하고자 전주에 방문했다.

이들은 2박3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아 전주한옥마을 외에도 덕진공원과



전주역사문화박물관 등을 찾아 한옥과 한식, 한복, 한지, 판소리 등 전주에서 한문화의 정수를 경험한다.

K-POP 등 음악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음식, 언어 등 K-컬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한글학교 학생들은 비밀 방법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주 대시습청 뮤지컬 조선세프 한상궁 등 퓨전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전주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체험한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원 4명, 5분 발언 잇따라

- 최서연 의원, 사업재해 예방 위한 전주시 실질적 정책 대안 필요
- 박혜숙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맨홀 대한 적극적·선제적 안전 조치 필요
- 이국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유독화합물질 사고 적극 대비 촉구
- 전서영 의원, 도시재생 활력 유지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 촉구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서연(진북,인후1·2,금암1·2동)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1분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의 산업재해 피해는 전국과 전북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시는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산업재해 발생 여부 평가지표 활용, 전문 산업안전 지킴이 도입 및 현장교육 확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위험 요인 시민 신고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은 맨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관리하는 2만3,656개의 하수도시설 관련 맨홀 중 어느 곳도 철제 맨홀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추락방지시설 설치도 전무한 상황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단계적 맨홀 교체, 위험 강도에 따른 연차적인 안전장치 설치, 국가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욱기 기자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독화합물질 사고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팔복동 제지 공장 인근 산업단지는 54년, 36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외2)'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및 누출 발생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하는 등 시의 선제적인 대비를 요구했다.

전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공간의 지속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전주팔복예술공장과 전라감영길, 서노송예술촌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 공간 주변 상권 형성 및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공간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월드컵광장 일대 '한바탕 전주 물놀이장' 개장

전주시민들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줄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이 막판 점검을 끝내고 문을 활짝 연다.

전주시는 26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대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시원하게 놀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각종 놀이시설물을 대형화·다양화시켜 개장한다고 밝혔다.

한바탕 전주 물놀이장에는 구조물슬라이드와 유수풀, 워터바스켓, 아쿠아챌린지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조립식물은 동시에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과 비교해 대형화시켰다.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몽골텐트도 수량을 늘리고 그늘막을 설치했다.

또 탈의실과 무더위쉼터에 냉방시설을 갖추고, 사고방지를 위한 CCTV도 설치했다. 안전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 등 총 24명의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미운영 시간 및 야간시간에 보안을 위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영장 내 여과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고, 매일 2시간마다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